# 주 예수 사랑 교회의 “Young Adult”(젊은 어른) 라는 말의 정의Definition of Young Adult as used in Lord Jesus Loves Presbyterian Church

“Young adult”라는 말은 약 18-35세 젊은 어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참여하고 싶은 분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Young adult” 는 미혼, 약혼, 결혼,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부부들도 포함합니다. 교회에서는 중고등부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들어올수 있습니다. “Young adult”는“청년부”라는 말에 포함 되있듯이 미혼자들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Young adult”는“English Ministry (EM)”이라는 말에 포함 되있듯이 영어만 하는 사람들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사랑 교회에 “Young adult”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며, 현제 진행하는 서로에게 사역은 “Young adults”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사역에서는 현제 한글과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스페인 말도 포함할 생각도 있습니다.

“Young adult” generally includes ages 18-35, but anyone is welcome. “Young adult” includes those that are single, engaged, married, and those with young children. From our church, students graduating high school would be able to enter from youth group. Young adult is not exclusive to singles (as denoted by Korean word “Chung-nyun-boo”) or English Speakers (as denoted by common term “English Ministry”), and for that reason, the word “Young adult” is used in Lord Jesus Loves Presbyterian Church, particularly to denote that “To One Another Ministries” is a “Young adults” ministry. To One Another Ministries currently uses both Korean and English, and may expand to use Spanish in the future.

# 2012년도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신 일들)God’s grace of 2012 (what God has accomplished through us)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원수는 계속 자랐으며, 아직도 더 들어 온다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역안에 이번 해에 여러 문화들일 설정 됬습니다. 몇가지를 말한다면: 서로를 위한 기도, 매주 합심 금식, 매달 소셜 모임 (교회를 보통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기를 위해), 주일 마다 만나서 성경 공부하기, 매년 부흥 집회 (중요한 사랑), 가난한 사람들과 관계 만들기, 등등

God has been demonstrating His grace heavily this year. Membership base has grown exponentially and there is still news about more people joining. We have established several cultures for our ministry. To name a few: Prayer for One Another, weekly joint fasting, monthly Social Events (to reach others that normally do not attend church), consistent weekly gatherings (Bible Studies), Annual Revival Event (The Love That Matters), outreach to the poor, and many others.

* 서로를 위한 기도는 4월 8일 2012년에 시작 됬습니다. 매달 마다 (마지막 주에)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사이에 임제하시며 서로를 위해 기도 할때 기적을 보이십니다 (우리 몇 명은 그 기적을 받았습니다)
Prayer for One Another has been established on 8Apr12. This is to be a monthly event (last week of each month), where we simply pray for others. God is in our midst as we pray together, and He can work miracles as we pray for others. (and for some of us, He has)
* 북한이 우리의 선교의 나라로 정해젔습니다. 아직은 그 나라에 들어 갈 방법을 찾지 못했지만, Liberation in North Korean (LiNK)라는 북한에 불쌍한 사람들이 탈출 할수 있도록 돕는 조직과 연결 됬으며, 우리의 헌금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현제 북한으로 들어 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을 방문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North Korea has become our mission country. Though we have not yet found a way for insertion, we have been in contact with organizations such as “Liberation in North Korea (LiNK)” to contribute our funds for support. We are looking into mission opportunities in North Korea (which seems possible for US Citizens) to see the conditions in that country.
* 9월에는 우리의 마음으로 돈을 모아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Simple Way라는 조직에게 기부하였습니다. 이 것을 인하여,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학용품을 갖고 학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In September 2012, we gathered money together, as offered from our hearts, to donate to The Simple Way, an organization that supports youths in poverty in Philadelphia, PA. This enabled the children to start school with proper school supplies.
* 우리는 주일 오후 1:30마다 성경 공부로 모입니다. 이번 년도 초반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끓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구했습니다. 곳 성경 공부가 됬고, 욥기를 전체적으로 공부했습니다. 현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을 사용하며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We now have consistent 1:30pm gatherings, which has now evolved to deeper Bible studies. We began the year in a position of humility asking God which way our group should go. Then we went through the entire book of Job, then we concluded the year studying the book “Experiencing God” – we look forward to more in 2013.
* 우리는 2012년도에 여러 소셜 모임들을 갖었습니다. 이 모임들은 교회 밖게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며 관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교회 밖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한가지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성공적인 결과를 많이 보여 주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모임을 참석했으며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 두 사람은 우리 소셜 모임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험 했습니다 – 12월 22일에 두분은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We had various social events, with the intent to mingle and be in relationship with others outside the church. We are called to be the light of the *world*, and this has enabled us to reach outside our church walls. This has been a huge success! People that normally do not attend church joined those gatherings allowing us to get to know them. One couple met through one of our events, and have been demonstrating what God’s grace looks like to others – they are happily married now as of 22Dec12.

# 2012년의 행사들 (Events of 2012):

* + 7Jan12 (Saturday)
	재숙 자매님이 교회에서 young adult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 했습니다.
	Jae Sook prepared dinner for young adults at church
	+ 14Jan12 (Saturday)
	Mountain Creek에 가서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타러 갔습니다. 우리 여러명은 처음으로 가서 굴르고 다치기도 했지만, 너무 재미 있어서 또 하러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교회를 보통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진영 형제님이 우리 모임을 여기서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We went to Mountain Creek to ski/snowboard – many of us for the first time (we stumbled down hills, got hurt, but had such a fun time that we had to do it again!). We had an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people that do not attend church. Tommy Kim joined us for the first time.
	+ 5Feb12 (Lord’s Day)
	Shed라는 모이는 장소에서 함께 pizza를 먹으면서 Superbowl (미국 축구)를 봤습니다.
	We met at the shed to watch the Superbowl together with pizza.
	+ 3Mar12 (Saturday)
	다시 Mountain Creek에 갔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모였고,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We went to Mountain Creek again. We had an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several people that do not attend church.
	+ 1Apr12 (Lord’s Day)
	전도 실행을 해봤습니다. 이 행사를 위하여 서로에게 t-shirt가 처음으로 만들어 젔습니다. 우리는 한아름, 한양과 Broad Ave에 우리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We attempted street evangelism at H-Mart, Hanyang, Broad Ave. We had our first set of T-shirts made for this event.
	+ 8Apr12 (Lord’s Day)
	서로를 위한 기도가 이 날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Prayer for One Another began.
	+ 6Jun12 (Wednesday)
	합심 금식이 이 날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아직도 수요일마다, 새벽 12시 부터 오후 12시 까지 (12시가)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같이 한 마음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Joint Fasting began. This is still on-going today, every Wednesday morning from midnight to noon (12am – 12pm)
	+ 23Jun12 (Saturday)
	Mohonks Mountain Preserve에 하이킹하러 갔습니다. 이런 소셜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걸으면서 대화를 통해 좋은 관계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 제일 높은 곳에서 우리 나눠저서 각자 하나님과에 시간을 갖았습니다. Iris Kwak 자매님이 우리 모임에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We went on a hike at Mohonks Mountain Preserve. Another major social event that attracted people that normally do not attend church. We had various interactions along the way and were able to develop new relationships. We spent time in individual prayer once we got to the peak of the mountain. Iris Kwak joined us for the first time.
	+ 26Jul12 (Thursday)
	이번에는 Six Flags Great Adventure으로 갔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 특히 이 모임에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1년 동안 일본에 가서 보지 못한 Ayako도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Ayako가 남편도 대리고 와서 함께 좋은 교제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We went to Great Adventure. We had an opportunity to interact with several people that do not attend church. Ayako joined us again after being away for over a year, this time with her husband. We had a blast.
	+ 25Aug12 (Saturday)
	Brazillian BBQ를 광고하며 Tallman State Park에서 모였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위대한 요리사 노태규 (Daniel No) 가 준비하고 만들어 주었습니다.
	We had Brazilian BBQ at Tallman State Park – food was prepared and cooked by our special chef Daniel No.
	+ 9Sep12 (Lord’s Day)
	많은 정보가 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신문에 본데로 집 없는 사람들이Newark에 있다고 해서음식과 음료수를 준비해서 가 봤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Penn Station은 다른 기차역과 틀린 것이 없게 생겼었고, 우리 정보가 틀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음식과 음료수를 가지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음식들은 순식가에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다음에는 더 준비해서 와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Without much knowledge, simply with the desire to help the poor, we prepared food and drinks and visited Newark, NJ to see if homeless people really gathered there. Upon first glance, Penn Station looked like a normal train station with just common people. When we brought the food and drinks, many people lined up, and we ran out of supplies to give out in very short time. We prayed for them and agreed to come back more prepared.
	+ 13Sep12 (Thursday)
	만하탄에 배 타러 갔습니다. 우리의 소문난 커플, 보라와 태용이 만난 소셜 모임이었습니다.
	We went on a boat ride in NYC – this is where our infamous couple, Bora and Tae Yong, met.
	+ 23Sep12 (Lord’s Day)
	즉석 모임이었습니다. Overpeck Park에서 모이기 위하여 각자 집에서 2인분식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모두 배부르게 먹고 서로의 임제함을 즐겼습니다.
	We had an impromptu picnic at Overpeck Park. Individuals prepared food from home for at least two people. We all had our full and we enjoyed the presence of each other.
	+ 7Oct12 (Lord’s Day)
	NYC 힐송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운영하며 한국 교회보다 틀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한 생각과 마음들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다른 교회들도 방문 할 생각입니다.
	We visited Hillsong Church in NYC together. This enabled us to see how churches can be run differently. We plan to visit other churches in the near future to expand our views on worship.
	+ 14Oct12 (Lord’s Day)
	Newark에 집이 없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또 한번 힘들어 하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며 먹고 마실 것을 재공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음식과 음료수를 3배 넘께 준비하였지만, 똑같은 속도로 우리의 준비한것들이 없어 졌습니다. 그 많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분들과 대화를 나눴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날 후로, 윤명식 집사님이 2주마다 소구룹으로 Newark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계속적인 만남을 갖기로 정해졌습니다.
	We visited the Homeless in Newark together again. We got to interact directly with those in need and provided food and drinks for them. This time, we prepared three times as much food and drinks; however, we ran out of supplies just as quickly, as there were that many people that were seeking help. We opened dialogue with some of them and had a chance to develop a deeper relationship. From this day forward, Deacon Myung Sik Yoon volunteered to visit every two weeks to continue to develop a consistent relationship.
	+ 21Oct12 (Lord’s Day)
	또한 즉석 모임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Bear Mountain에 가서 가을 나뭇입 환경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Another impromptu trip – we went to Bear Mountain and had our service outdoors in the midst of leaves in Fall.
	+ 28Oct12 (Lord’s Day)
	김현숙 권사님이 우리를 초대해주셨습니다 (아직도,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열린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처음으로 해보는 부흥회를 준비하였습니다.
	Deaconess Kim Hyun Sook invited us over. We had open discussions and made plans for the upcoming revival, which we were attempting to hold for the first time.
	+ 9Dec12 (Lord’s Day)
	young adult들의 처음 부흥 집회를 실행했습니다. 우리 멤버 수는 많지 않았지만, 진행이 우리가 상상했던것 보다 잘 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교회를 보통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부를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곳에 충분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웹페이지에 있습니다: <http://www.thelovethatmatters.com>
	We held our first young adults revival. Regardless of how few we were, it was a positive turn out, more than we had expected. Through this event, we were able to invite people that normally do not attend church, and the Gospel was shared. God worked His grace there. More info at <http://www.thelovethatmatters.com>
	+ 16Dec12 (Lord’s Day)
	우리 은혜가 풍성하신 김현숙 권사님이 우리를 다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처음으로 진행한 부흥집회에 대하여 서로 나눴습니다. 좋았다는 의견으로 매년마다 “중요한 사랑” 부흥집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런 편한 장소에서 모이게 되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임들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e were again invited by deaconess Kim Hyun Sook. We shared our views and experiences of our first revival event and sought to look forward to future revival events. We had some personal conversations and got to know each other better. We need more of this!
	+ 22Dec12 (Saturday)
	보라 자매님과 태용 형제님은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은혜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2013년에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Bora and Tae Yong got married. This is one of the many graces God has shown in our ministry. We look forward to more of this grace in 2013.